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56% 달성...도지사 표창 수상

✎ 이진화 기자 | ✎ 승인 2026.05.18 18:51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56.25% 달성 눈길
공공구매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
지역업체 우선 검토로 상생협력 강화 추진

(평창=국제뉴스) 이진화 기자 = 지우현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전략경영팀 대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유공 포상'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전략경영팀 지우현 대리 '2025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유공 포상' 도지사 표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이번 표창이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공단은 2025년 총구매액 14억4,700만원 중 8억1,400만원을 도내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 56.25%의 구매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공단은 물품, 용역, 공사 계약 추진 시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성과로 인정받았다.

지우현 대리는 수상 소감에서 "공공구매 업무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내 업체와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철 이사장도 "이번 수상은 공단이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 있는 공공구매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진화 기자 musicjin123@naver.com